

“삶·죽음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불교로 읽는 古典

몽테뉴의 <수상록>



맹난자 수필가

몽테뉴(Michel de Montaigne, 1533~1592)는 르네상스 당시의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성이며 문필가이다. 그가 정착시킨 에세이란 명칭은 그의 <수상록(Les Essais)>에서 비롯한다. 서양 에세이의 비조(鼻祖)적인 몽테뉴는 어린 시절 라틴어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는데 이는 라틴어 고전 독서와 글쓰기에 대단히 유용했다. (107장의 에세이로 이어지는 그의 <수상록>에는 키케로, 세네카, 아우렐리우스, 호라티우스, 루크레티우스, 오비디우스, 베르길리우스, 루카누스 등의 고대 철학자와 시인의 글들이 인용된다.)

보르도 고등법원의 판사를 지내고 보르도 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했다. 결혼 후에 얻은 여섯 딸 중 하나만 살아남고 절친한 친구 라보에티의 죽음, 아버지의 사망으로 실의에 빠져, 2년 뒤 판사직을 내던지고 고향의 몽테뉴성으로 돌아왔다. 자연히 그의 <에세>의 주요 테마는 죽음과 고통에 관한 것이었다. 그를 괴롭히던 신장결석의 지병도 죽음의 성찰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일찍이 아무도 나만큼 철저히 이 세상을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은 없으리라”던 그를 요즘 자주 떠올리게 된다.

그는 죽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습해 오는 것을 소개하면서 어쩌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한 순간 인들 죽음이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죽음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면서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정면으로 대면하자. 피하려 하지 말고 앞서 마중하자. 사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그것의 낯설 때문인데, 그렇다면 죽음을 자주 바라보고 죽음과 친해지면 된다. 그래서 사(死)가 생(生)의 한 부분이라면 아예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계속 죽음을 바라보고 계속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실제로 그는 어느 날 말을 타고 산책길에 나섰다가 말에서 떨어져 두 시간 이상이나 의식을 잃고 선지피를 토해내며 하인의 등에 업혀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다.

“말발굽 아래 밟히는 순간 죽었다고 생각했으나 그 생각은 너무 다급하여 공포를 느

낄 여유도 없었다. 이때 갑자기 한 줄기 번갯불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어서 다시 저승에서 돌아온 것처럼 느꼈었다. 이런 조그마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할들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그러나 나는 이 일에 좋은 교훈을 얻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때 비로소 죽음과 친숙해지기 위해서 죽음에 접근해 보는 도리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폴리너우스 말대로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심사하는 능력만 있으면 자기 자신이 가장 훌륭한 교재이다. 이것은 주어진 학식이 아니라 스스로 얻은 연구이다. 남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교훈이다... 몇 해 전부터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을 사색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다만 나 자신만을 연구하고 있다... 배가 기룩하는 글은 나의 행동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이다. 죽 나의 본질이나 다름이 없다. 나는 자기를 판단하려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수상록>에 보이는 글들이다.

그는 자신의 책 제목을 ‘실험’ 또는 ‘시험’을 의미하는 에세(essai)라고 불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초상을 주조시켜 ‘Que Sais-je?(나는 무엇을 아는가)’를 새겨넣고 뒷면에는 평형을 이룬 저울대를 그리고 그 위에 ‘나는 판단을 배제한다’는 글귀를 새겨 넣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의 되물음은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경구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상이라’는 노자의 사유와 궤를 같이 한다.

한편 그의 깊은 회의는 당시 그가 목격한 종교전쟁에도 기인한다. 그는 왕을 수행하여 구교도로 참전했는가 하면 때로는 양 진영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36년간이나 지속된 신교도(위그노파)와 구교도(카톨릭)들의 싸움은 광신도들이 비롯된 인간의 광기에 다름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성만을 오로지 고집하는 오만한 독단론자들이었다. 그들이 진술하는 신, 우주, 영혼, 정신 육체 등 주요한 주제들에 의견을 점점하며 몽테뉴는 그 가운데 절대적 진리가 부재하다는 것을 알았다. 신의 죽음을 선포한 니체 역시도 진리란 ‘환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환상’이라며 절대적인 것을 믿는 행동이야말로 병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공허한 관념들로 옥죄어 있는가? 우리를 짓누르는 편견과 독단, 이 허구로부터 풀려나지 않는 한, 인간은 사유와 창조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 본 그는 지식에 관한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양극단을 엄격히 배제하는 실증주의자로서, 어떤 종류의 확실성도 인정하지 않으며 단정적으로 결론짓기를 거부하는 회의주의에 기

울었다. 몽테뉴는 회의에 대해 “관고 굴함이 없는 판단의 자세”라고 정의하며 그는 “모든 사물을 받아들이되 집착하지도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언급했다.

“사물을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는다.” 모든 사물에 대해 집착 없이 수납하고 게다가 함부로 동의하지도 않는다니, 이때 그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應無所住而生起心)” <금강경>의 수행자 같았다. 그는 점차 모든 억매임과 집착에서 놓여나 자유로움을 만끽한다.

저 맑은 하늘처럼 평온한 마음의 상태이다. 이것을 가리켜 회의주의 철학자(피롱파)들은 ‘아타락시아’라고 불렀는데 몽테뉴가 진술한 만년의 심경을 살펴보면 그가 그런 경지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자녀, 친구, 아버지의 죽음에 ‘죽음·고통’에 대한 성찰 계기 “죽음은 우주질서의 하나”

“받아들이되 집착 않기” 주장 ‘應無所住...’, ‘無罣碍故...’

금강경·반야심경 가르침 맞닿아

“...어디로 시선을 돌려 봐도 그 둘레에 하늘은 고요하고, 공기를 어지럽히는 어떤 욕망도,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도, 또 과거와 현재의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에게 고마운 일인지...”

그의 욕성이다. 이미 어떤 욕망도, 두려움도, 의심도 없는 자리에 가 있다는 그가 반야의 행자처럼 진정한 자유인으로 다가왔다. 마침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지성소(至聖所)가 아닌가. ‘마음에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도 없다’는 <반야심경>의 ‘무가애고무유공포(無罣碍故無有恐怖)’가 겹쳐졌다. 불교의 수행이란 달리 있지도 않는 깨달음을 얻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탐·진·치 삼독(三毒)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미 욕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는 그가, 대평안심에 들어있는 어느 해탈한 성자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지혜로운 이의 삶은 전부가 죽음에 대한 준비라면서 죽음과 친해지자던 그가, 스토아학파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죽음과 고통 따위는 자연에 맡기고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자연회귀를 택한다. 자연은 삼라만상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울



프랑스 보르도 시내 광장의 몽테뉴의 동상. 비극적 죽음을 대면하고 스스로도 죽을 고비를 넘겼던 몽테뉴는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천착하고 사유했다.

동과 조화의 기적을 이루어 내고 있는가! 그러나 자연을 넘어서려는 오만한, 부질없는 야망을 버리고 전적으로 자연을 따르라고 했던 것이다.

몽테뉴는 스토아시즘에서 천성(天性)에 따라 자연을 즐기는 ‘에피쿠리안’이 된다. 그러나 그는 감각적 쾌락에서조차도 정신을 개입시킴으로써 쾌락이 전인적(全人的)인 것이 되기를 원했다.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되 그것이 감각의 표피를 스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대신 온 정신으로 그것을 증폭시킴으로써 더욱 충만한 것이 되기를 바랐다. 그는 이 경지를 가리켜 ‘완성’이란 말로 표현했다. ‘자신의 현존재를 당당하게 즐길 줄 아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현 존재의 오묘한 알아차림, 당처(當處)가 모두 진여(眞如)라는 입체선사의 말씀이 떠올랐다. ‘수처자주 임처계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몽테뉴의 삶의 지혜는 ‘결국 즐기자. 멋있게 즐기자’로 요약된다. 붓다께서 설한 무상(無常)·무아(無我)·고(苦)가 상악아정(常樂我淨)으로 전환된 그 열반처에 있 것이다.

죽음을 탐구하며 들어가 만난 것은 ‘생의 철학’이었다. 그러나 죽음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는 말한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대가 살아 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그대에게 관여하지 않는다. 살아 있을 때에는 그대를 생존해 있으므로, 죽었을 때에는 그대를 벌써 이 세상에 없으므로, 아무도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대가 남겨 놓고 가는 시간은 그대가 출생하기 전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본래 그대의 것이 아니었다. 그 둘 다 그대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는 숨을 한번 고른다. “죽으면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이 두려울 수 있는가?”

에일대학에서 17년 동안 죽음을 강의한 셸리 케이건 교수가 우리에게 던진 물음이다. 몽테뉴의 문장을 여기에 병치시키고 싶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불교에서는 원래 죽음이 없다고 말했다. 죽음이 없다고 내가 죽는 일은 아예 없다는 것. 왜냐하면 죽을 내가 없기 때문이다. 무아(無我)를 아는 것, 이것이 대반야바라밀이다. ‘생사는 본래 그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의 말을 나직히 읽어본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신의 존재와 마주하는 일일 것이다. ‘Que

Sais Je?’ 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그의 탐구법은 간화선의 화두 ‘이 뭣고’와 다르지 않다. ‘나는 누구인가?’ 내부로 향한 그의 명상은 아상(我相)을 지우고, 판단을 배제하며 마침내는 집착과 분별심마저 내려놓게 했다. 그의 정신이 도달한 지점이다.

빛해 전, 한국의 수필가들과 몽테뉴 성(城)을 찾아 그의 서재에 들어선 적이 있었다. 시야는 3면으로 트여있고 실내는 직경이 열여섯 걸음 정도 되는 공간이었다. 예전에는 건초를 쌓아두었던 헛간이었는데 차차찬 돌바닥에서 어떻게 추운 겨울을 지냈을까? 이런 내 기우를 떨치고 그는 이 서재를 세상에 돌도 없는 나만의 공간으로 여겼다.

스스로 외딴 곳에 처해져 자신이 고독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의 감정과 사상을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이며 나의 걸음을 제한,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망과 심로(心勞)를 제한,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썼던 <고독에 대하여>라는 글도 이곳에서 쓰여진 듯하다. 고독해져야 비로소 욕망과 심로를 억제할 수 있다는 그가 웬지 친근한 수행자처럼 다가왔다.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해 갖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방에서 빠져 나오려는데 등 뒤에서 그가 한마디 던졌다.

“당신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라. 당신이 생각도 두려움도 없이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온 것과 동일하게 이번에는 삶에서 죽음으로 건너가라. 당신의 죽음은 우주 질서의 하나다. 이 세상의 생명의 한 부분이다.”

두려움도 없이 삶에서 죽음으로 건너가라고 한다. 당신의 죽음은 ‘우주 질서의 하나’, 수기(授記)처럼 나는 그것을 가슴에 받아 지니고 도피안(到彼岸)을 생각하며 좁은 계단의 통로를 빠져나왔다.

내가 그를 경애해 마지않는 것은 다르지 않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실체를 정확히 보려는 것에서 출발한 그의 명상이 도달한 곳은 무심(無心)과 평정심이었으며 그의 <에세>는 엄격한 자기 점검과 성찰로 이어진 수행의 여정(旅程)이었다.

그는 견해(見解)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정견(正見)을 확립한 현자였으며 양극단을 배제한 중용(中庸)의 실천가로, 가난한 농민을 위해 평등사상을 고취한 휴머니스트로, 그리고 무엇보다 격조 높은 철학 수필을 우리에게 선물한 최초의 에세이스트였기 때문이다. 죽음의 명상가, 그가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샘물은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기에 충분한 갈로수, 한 권의 <에세>(Les Essais)였다.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걸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뚝이 늘 빠진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은증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무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격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 사주팔자(사주팔자)이론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속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

글쓴이 : 혜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리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전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법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점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